



정 찬씨

세계사/A5/286면/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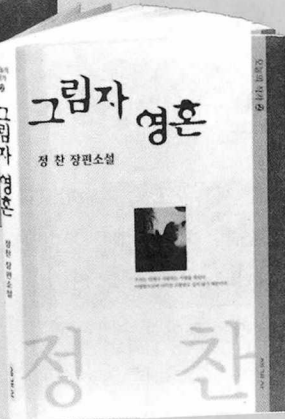
정 찬씨(49)의 신작장편 《그림자 영혼》(세계사)은 인간의 악

한 본성을 다루고 있다. 중편 《완전한 영혼》이 타자의 입장을 껴안고 포용하는 인간성의 '밝음'을 탐구했다면, 이번 작품은 무의식에 가려 있는 악의 본성을 캐내, 무한으로 치닫는 한 젊은 영혼의 자기 파괴를 보여준다. 정씨는 이번 소설의 모티프를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악령》에서 따왔다.

#### 프로이트의 독법으로 악의 본성 읽어내

“도스토예프스키의 무덤에 갔을 때 《악령》의 주인공이 떠오르지 않아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 소설을 다시 읽으면서 스타브로긴이란 흥미로운 인간을 재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마음은 그 초인적인 ‘악령’에 대해 무한한 연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누구나 그런 잠재적인 ‘악’을 하나씩 품고 있다는 확신까지 들더군요.”

스타브로긴은 아름다운 용모와 명석한 두뇌, 꺼질 줄 모르는 정욕의 소유자다. 그는 자신의 극단적 관념을 실천해 사회적 관습을 거침없이 허물어뜨리고, 주위 사람들을 황폐한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다. 《그림자 영혼》은 자신과 스타브로긴을 동일시하는 김일우란 인물의 환상적 삶을 정신과 의사인 1인칭 화자가 관찰·추적하는 내용이다. 기존 소설의 캐릭터를 재가공하고, 정신분석의 임상보고서 형태를 취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 어느 ‘악령’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보고서

《그림자 영혼》 펴낸 정 찬씨

이 소설은 도스토예프스키에게서 질문을 빌려와 프로이트식으로 해답을 찾아나간다. 무의식적 상처를 간직한 영혼이 연출하는 자기 파괴의 드라마를 분석적으로 보여준다. 인간의 구원문제를 꾸준히 천착해온 작가는 이번에도 특유의 치밀하고 성실한 사유의 성체를 건축한다. 그가 ‘악’의 본성으로 제시하는 김일우의 삶은 인간의 운명에 대한 도저한 희의를 불러일으킨다.

“다른 작가가 완성한 인물을 내 식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이 무척 힘들더군요. 김일우란 인물은

제가 스타브로긴에게 탈취한 악의 고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정신분석학적인 접근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관념덩어리’인 인물들에게 구체적인 생활의 옷을 입히려 애 많이 먹었죠.”

김일우는 현실을 포기하고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가 목표하는 삶은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은 자살하는 것. 그의 살부(殺父) 욕구는 어머니가 일찍 죽고 어머니를 대신하던 영희란 소녀를 아버지가 겁탈하는 순간에 확고해진다. 김일우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스타브로긴의 삶을 모방하고자 마음먹는다. 그를 둘러싼 주변상황은 《악령》에 등장하는 폐허와 점점 흡사해진다. 하지만 정씨가 이 장면들에서 문제삼고자 한 것은 주인공의 윤리적인 파탄과 주변인물의 처참한 희생만이 아니다. 그는 김일우가 자신의 시나리오를 연기하기 위해 마련하는 자기합리화에 주목한다.

#### 냉혹한 자아중심주의 비판해

“김일우의 자살은 비극으로 비칠지 몰라도 실은 철저한 자기만족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신으로, 영희와 인수를 마드르샤로, 자기가 머문 공간을 페테르부르그라는 거대한 극장으로 여기고, 자신을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로 착각하는 것은 모두 자기만족을 대비한 현실의 왜곡이었습니다. 화자는 그의 연기를 바라보는 관객에 불과

했죠.”

그는 이 소설을 쓰며 인물들이 행동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 동인들을 치밀하게 배치했다. 《악령》의 배경도시인 페테르부르그 자체가 큰 극장이라는 설정을 통해 주인공의 ‘연기’를 뒷받침하고,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에서 ‘허구’를 위해 ‘현실’을 포기하는 인물을 찾아내 주인공의 자살에 설득력 있는 알리바이를 제공한다.

《그림자 영혼》엔 냉혹한 자아중심주의적 이성에 대한 비판이 자리잡고 있다. 자아 중심적인 시선이 삶의 의미를 포착하려는 순간 삶은 점점 ‘그림자’에 의해 지배당하고 종국에는 황폐해지는 영혼의 극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 생명을 두려워하는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슬프고도 끔찍한 일이지만, 어두운 문명사회는 이런 인간들을 수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린 자식을 사디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비정상적인 인간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정씨에 따르면 오늘날의 인간은 악한 본성 내부에서 억누르는 일에 익숙하다. 하지만 억눌린 본능은 썩게 마련이어서 그 악취가 계속 밖으로 새어나온다. 정씨의 이번 소설은 그 오래된 본능을 이성의 탁월한 분해술로 해체하고 치유하고자 한 노력이다. - 강성민 기자